

오클랜드 성 김대건 한인 천주교회

ST. ANDREW KIM KOREAN CATHOLIC CHURCH

6226 CAMDEN ST. OAKLAND, CA 94605 WEB WWW.OAKCC.ORG

주임신부 Fr. Gabriel Kim 김가브리엘(명식) (510) 562-3843
 사목회장 Lay council chair 게토마스(성일) (510) 589-3311
 thmschae@yahoo.com

사무실 (510) 553-9434 Fax (510) 639-4842
 standrewoak@gmail.com
 대건외관 (510) 562-8107

미사	주일 미사	오전 8:00 오전 11:00 영어미사 12시 30분	성사	고백 성사	미사 30분전	예비자 교리	주일 오전 9:30(106회의실)
	평일 미사	수,금,토 오전7:30 화,목 오후7:30		유아 세례	2주일 전 신청		
신심	성시간	매월 첫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지속적인 성체조배	병자 성사 봉성체	2주일 전 신청	통신교리 - 전화문의	
	성령 기도회	매주 토요일 미사 후 (대건회관)		혼배 성사	3개월 전 신청		
	향심 기도회	매주 목요일 오후 8시(107회의실)	한국학교	매월 첫 금 9 PM ~ 토 7 AM			
하느님의 뜻영성	매주 목요일 오후 8시(103회의실)	토요일 오전 9:40-12:50					
주일 학교	매주일 오전 11:00-12:15						

잊지 않겠습니다...



- [제 1독서] 사도 1, 1-11
 [화답송] 시편47(46), 2-3, 6-7, 8-9(◎6)
 ◎ 환호 소리 가운데 하느님이 오르신다.
 나팔 소리 가운데 주님이 오르신다.(또는 ◎알렐루야.)
 ○ 모든 민족들아, 손뼉을 쳐라. 기뻐 소리치며 하느님께 환호하여라.
 주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 경외로우신 분,
 온 세상의 위대하신 임금이다.◎
 ○ 환호 소리 가운데 하느님이 오르신다. 나팔 소리 가운데
 주님이 오르신다. 노래하여라, 하느님께 노래하여라.
 노래하여라, 우리 임금님께 노래하여라.◎
 ○ 하느님이 온 누리의 임금이시니, 찬미의 노래 불러 드려라.
 하느님이 민족들을 다스리신다. 하느님이 거룩한 어좌에 앉으신다.◎
 [제 2독서] 에페1, 17-23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쳐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복음] 마태28, 16-20

성가	8시 미사	입당 141	봉헌 221 512	성체 501 502	파견 137
	11시 미사	입당 141	봉헌 221 512	성체 501 502	파견 137

주일 전례 봉사

구분	주님승천대축일(6월 1일)		성령강림대축일(6월 8일)		삼위일체대축일(6월 15일)	
	8시미사	교중미사	8시미사	교중미사	8시미사	교중미사
미사해설	임투카(승원)	이엘리사벳(자영)	정스텔라(애리)	황테레사(혜정)	김안토니오(휘)	조레지나(선덕)
제 1 독서	최베네딕토(환준)	이레이몬드(창용)	정프란치스코(일환)	김사비노(영준)	이바로로(명국)	허라우렌시오(순구)
제 2 독서	최베네딕다(수영)	이베로니카(경란)	정글라라(영희)	이골롬바(정연)	정스텔라(애리)	문골롬바(지영)
보편지향기도	독서자		독서자		독서자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무엇인가를 바랄 수 없는 사람들의 절망이 가득한 오늘날의 한국 사회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희망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모든 가치의 제일 순위가 돈으로 바뀐 이 썩어빠진 세상에서 우리는 돈 없고 뺨 없이 살아가는 변방의 사람들일 뿐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고백했던 갈릴래아 변방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당시 사회 안에서 주류를 이루는 사람들과는 정반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을 목격하였지만, 자신들의 삶의 고통이 너무나도 팍팍했기에 승천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도 멍하게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하느님을 잃었다는 슬픔, 주님을 다시 볼 수 없다는 괴로움은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크나큰 절망으로 다가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발생하는 사건 사고들 속에서, 그리고 자신들의 탓 없이 희생된 수많은 세월호 희생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현대 한국을 살아가는 우리가 세상 안에서 어떤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 젊은이들이 이 사회 안에서 희망을 갖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프다고 말하는 것, 힘들다고 말하는 것, 괴롭다고 말하는 것이 전달되지 않는 사회는 병든 사회입니다.

아무도 상대방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하고,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으며, 심지어 상대방의 호소를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사회 풍조 속에서 과거 우리 민족이 지니고 있었던 소중한 가치인 나눔의 공동체 정신을 다시금 떠 올려 봅시다.

그러나 우리는 절망에 빠져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 안에서 살아가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의 고통을 대신 짊어지시고 죽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쳐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희망을 잃고 절망에 빠져 있을 때, 다락방 문을 꼭꼭 걸어두고 원수들이 잡아갈까 무서워 떨고 있을 때, 그분께서는 살아계신 하느님의 모습으로 우리 인간들 가운데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 날에 그 모습대로 우리와 함께하실 것을 우리는 믿고 희망합니다.

이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늘만 바라보며 무작정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인류의 역사를 주재하시는 하느님 안에서 모든 것을 변화시키고, 주님의 기쁜 소식을 현실화시키는 것이 우리가 오늘에 충실해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황창희 알베르토 신부
인천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2014년 신앙생활 지침
하느님께서 각 사람에게
공동선을 위하여
성령을 드러내 보여 주십니다.
(코린1, 12,7)

생명의 말씀

마음을 드높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서는 40일 동안 제자들 앞에 여러 번 나타나시어 하느님 나라를 일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을 남겨 두고 가시는 예수님의 심정이 어떠하셨을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별은 언제나 안타까움을 더합니다. 떠나야만 하는 이와 남아야 하는 이. 단 1초라도 더 함께하고픈 애절한 순간을 그들은 이렇게 맞이합니다.

이토록 안타까운 이별 안에 숨겨진 하느님의 뜻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의 승천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천 년 전 예수님의 승천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가 '돌아갈 곳'이 어디인가를 정확하게 깨우쳐 주는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다가,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 간다.” (요한 16,28) 동시에 예수님의 승천은, 우리도 이 세상 너머 존재하는 하느님 나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이며, 경험세계를 뛰어넘어 영혼의 안목을 열어 주고, 초월세계와의 만남이 시작되는 교두보라 하겠습니다.

이 만남은 세상에 발을 딛고 살고 있는 내가, '잃어버린 나'의 본래 모습과 내 안에 숨은 하느님의 모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이끌어 줍니다.

더불어 용서와 평화의 마음을 갖게 하며, 순간순간의 귀한 만남에 감사할 줄 아는 좀 더 큰 인생의 길을 걷도록 해줄 것입니다.

하느님의 나라는 이미 와 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에, 그분의 세계를 찾아 나서는 일은 “바로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시작하라.”는 신학자들의 표현대로, 내 인생의 질을 높여 주는 새 삶을 향한 이 여정은, 지금 나의 현실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승천 후 사도들은 올리브 산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또한 초월세계와의 만남 뒤에는 다시 현실의 세계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제와는 전혀 다른 오늘의 의미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초월의 세계를 경험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하루살이는 그 내면의 질과 깊이를 가능하기 어려운 차이를 보일 것입니다.

철학자 김태길 교수는 ‘흐르지 않는 세월’에서 인간의 문제를 고뇌케 하는 세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네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나?”, “네가 가장 미워하는 것은 무엇이나?” 그리고 “네가 가장 바라는 것은 무엇이나?”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질문의 답은 ‘나 자신’입니다. 세 번째 답은 ‘나 자신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신을 넘어서는 것은 곧 ‘세상을 넘어서는 것’이요, 이는 바로 ‘승천’의 메시지입니다.

이제 현실에서 만나는 작은 것들 안에 숨은 큰 뜻을 찾아 생명을 불어넣는 노력을 해야 할 때입니다. 나의 지혜와 의지를 뛰어넘는 세상에 눈을 뜨는 순간, 승천하신 그분의 현존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갈릴래아 사람들아, 왜 하늘을 쳐다보며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 승천하신 저 예수님께서서는, 너희가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사도 1,11)

차원석 신부
서울 대교구 노원성당 주임

말씀의 향기

하느님, 돈하고 남편하고 바꿔 주세요!

결혼 20년 만에 분가를 했습니다. 집이 망해 식구가 함께 살 수 없게 되어 시부모님은 조그마한 집으로 모시고, 저희는 지하 월세방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저는 지하방도 좋았습니다. 결혼 20년 만에 처음으로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자 쌀독에 쌀이 비어가고 지갑에는 돈이 떨어졌습니다. 늘 분가를 꿈꾸면서도, 분가라는 것이 몸만 떨어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독립이 먼저이어야 함을 모르는 철부지였던 것입니다.

살길이 막막한 저는 남편과 함께 청소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평생을 귀한 몸(?)으로 지낸 남편은 그 일을 견디기 힘들어했습니다.

가기 싫다는 남편을 끌고 일을 다녀오면, 남편은 온몸에 파스를 붙이고 드러누워 끄끙 앓는 소리를 냅니다. 저는 그런 남편을 이해할 수도 없었고 이해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동안 결혼생활에서의 불안과 합쳐져서 남편에 대한 감정이 폭발 직전이 되었습니다. 기도하려고 하느님 앞에 앉으면 마음에 미움과 분노가 올라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느님! 제가 하루도 빠짐없이 세끼 밥을 해 바치고 외출 한 번 변변히 못하고 20년 동안 시부모님을 모셨습니다. 그런 저에게 상은커녕 이러시는 이유가 무엇가요?’

그리고는 제 분에 못 이겨 목 놓아 울었습니다. 하느님 앞에 퍼질고 앉아 운 날이 아마 평생을 합쳐 운 날보다 많았을 것입니다.

자존심은 만신창이가 되고, 남편에 대한 미움은 거의 증오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느 때처럼 울분에 차여 하느님께 고향을 치며 이런 기도까지 올렸습니다.

‘하느님! 돈하고 제 남편하고 바꿔 주세요. 저는 더 이상 남편 필요 없으니 돈으로 바꿔 주세요.’ 라고... 사람이 자기 욕심의 극단으로 가면 어떤 기도인들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문득 이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니?’ 머리끝이 쭈뼛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신을 차리니 남편이 보였습니다. 저만 힘들다고, 억울하다고 악을 쓰고 있을 때, 제 남편이 힘들게 함께 가고 있다는 것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실 남편은 결혼 전이나 결혼 후나 변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변한 것은 제 마음이었지요. 살 만할 때는 남편의 모든 모습이 봐줄만 했는데, 경제적 어려움이 닥치자 남편의 무능력이 보였습니다.

결국 제 안에서 일어나는 미움과 분노의 원인은 남편이 아니라, 제 안에 있는 악이었습니다.

소리치며 악악거리는 제 옆에, 소리도 지르지 못하고 참고 있는 남편이 있었고, 그 남편 뒤에 하느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깨달음에 이르자, 저 자신이 부끄러워 숨고 싶었습니다.

하느님, 죄송합니다.

윤미숙 베로니카
그림에니어그램 연구소 소장



하루에도 수없이 쏟아져 나오는
말. 말. 말...
이 세상에 말다운 말은
오로지 '말씀'뿐입니다.

글_이기락 신부 '아남네시스', / 그림_김윤경

가톨릭전례

구약 성경에 나타난 기도

“기도란 무엇인가?” 이 질문의 올바른 답을 성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구약 시절의 수많은 성인들이,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1) 아브라함의 기도: “믿음의 싸움”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자, 그는 “주님께서 이르신 대로” (창세 #12:4) 바로 길을 떠난다. 그의 마음은 전적으로 “말씀을 따랐으며”, 그는 순종했다(가톨릭교회교리서 #2570항).

아브라함은 일생을 통해서 “기도란 하느님의 말씀에 대한 신앙의 응답” 임을 증언했습니다. 여기서 하느님의 말씀이란 “땅과 자손을 주시겠다.” 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이야기를 조금 깊이 읽어 보면, 하느님의 약속에 “예!” 라고 응답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당면한 현실은 땅과 자손을 얻기에는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이 “예!” 라고 응답한 것은 깊은 “믿음의 싸움” 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느님과의 대화인 기도는 연애 중인 커플이 달콤한 이야기만을 속삭이는 대화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어찌 보면 결혼 생활을 해 나가면서 숏한 어려움을 겪는 중에, 경우에 따라서는 상대방과 대결하는 자세로 대화를 해 나가는 것과도 같습니다.

때때로 원망과 큰소리가 오고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를 잃지 않을 때, 그들의 대화는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기도는 신앙의 싸움” 임을 보여 주었습니다.

2) 모세의 기도 : “전구하는 기도”

하느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어 이스라엘 백성을 에집트에서 구원하도록 그를 파견하십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느님의 말씀에 선뜻 “예!” 라고 응답하지 못합니다.

모세는 회피하거나, 이의를 제기하기도 하며, 특히 질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타인을 위한 파견은 두렵고 힘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하느님께는 계속 모세를 설득하셨고, 모세는 오랜 줄다리기 끝에 하느님의 뜻에 자신의 뜻을 맞추게 되었습

니다. 이 과정에서 모세는 기도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곧,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 백성을 위해서 “전구하는 기도” 를 배우게 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고, 하느님께서 당신 몫으로 삼으신 백성을 위하여 기도한다. 아말렉족과 싸우는 동안 (탈출 #17:8~13) 또는 미르양의 병이 낫도록(민수 #12:13~14) 모세는 이미 전구했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백성이 변절한 뒤에 모세는 그들을 구하기 위하여 하느님 “앞을 막아서서” 그분 앞에 나아갔다(탈출 #32:1~34:9).

3) 다윗의 기도 : 공동체의 기도

다윗은 누구보다도 ‘하느님의 마음에 드는’ 훌륭한 임금이었으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또한 그 백성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목자였다.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 그의 순명과 찬미와 참회는 백성에게 기도의 모범이 된다(가톨릭교회교리서 #2579항).

다윗은 스스로도 기도하는 사람이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백성들이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했다는 점입니다. 다윗은 시편 기도를 짓고, 성전을 건축하여 백성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4) 예언자들 : 마음의 회개의 기도

성전은 하느님의 백성에게 기도를 가르치는 장소가 되어야 했다. 곧, 순례, 축제, 희생 제사, 저녁 제사, 향, ‘제사 음식’ 과 같이, 지극히 높으시고 아주 가까이 계시는 하느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나타내는 이 모든 표징들은, 기도하라는 호소이자 기도로 이끄는 길이었다. 그러나 흔히 형식주의는 백성을 지나치게 외적인 예배로 이끌어 가곤 했다. 그리하여 신앙 교육과 마음의 회개가 필요하였다. 이것이 귀양살이 이전과 이후의 예언자들이 맡은 사명이었다(가톨릭교회교리서 #2581항).

강신모 프란치스코 신부
의정부교구 선교사목국장

- 성 정아상 바오로 트리아벨리 안인천주교외 -

주임신부 Fr. Thaddeus Kim 김타데오(선류) (925) 600-0188/사무실 (925) 600-0177

Pleasanton Middle School, Multi-Purpose Room

5001 Case Ave. Pleasanton, CA 94566

◆ 미사 안내 : 매주 주일 아침 9시/수 & 토요일 아침 9시 30분, 목요일 저녁 8시

날짜		지향	봉헌자
6월 1일 일	연	정벤자민(대업)	정데레사(혜경)
	연	이마르코(재상)	가족
	연	윤바오로(광의)	가족
	연	이케네스(상열)	원젬마
	연	홍요셉	이안나(순자)
	연	조마오로(동완)	육아오스딩
	연	김중화	정데레사(혜경)
	연	이성원	정데레사(혜경)
	연	계영실	이카타리나(영보)
	연	조희진	유끼
	생	김에드워드(지성)	김케네스
	생	신마테오	박세레나
	생	서데레사	박세레나
	생	임루시아	김유릿다
	생	유끼의 가정	유끼
6월 3일 화	연	조마오로(동완)	김데레사
	생	크리스티나 페리	김엘리사벳
6월 5일 목	연	본당선종연령	선종봉사회
	생	본당신부님	서데레사
	생	하느님의뜻영성	서데레사
	생	신마테오	유이냐시오
	생	이정우	전수산나
6월 6일 금	연	메체도 린	서데레사
	연	이스테파노(상준)	서데레사
6월 7일 토	연	서라이문도	서데레사
	연	메체도 안토니오	서데레사
	연	메체도 린	서데레사
	생	김도미니코 신부님	서데레사
	생	레지오의 활성화	꾸리아

지난주 우리의 정성

< 주일 헌금과 참여인원 >

구분	8시	11시	영어미사	합계
미사참석인원	84	184	-	268
헌 금	\$510	\$1,078	-	\$1,588

< 교무금 > \$1,850

양인심(5-6) 정영연(4-5) 이정연(6) 허순구(5-6)

김영희(6) 주봉진(1-6)

< 성소후원금 > -

< Bishop's Appeal > -

< 감사헌금 > -

~~~~ 오늘 간식은 야외미사 관계로 없습니다. ~~~~

2014년 신앙생활 지침 : 하느님께서 각 사람에게 공동선을 위하여  
성령을 드러내 보여 주십니다.(코린1, 12,7)

- 공 제 사 양 -

◆ 6월은 예수 성심 성월입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하였듯이, 예수 성심은 하느님의 ‘사랑의 마음’ 입니다. 예수 성심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 인간에 대한 무한한 사랑을 드러내시는 예수 성심을 공경하고 묵상하며, 기도와 희생으로 예수님의 사랑에 보답합니다.

◆ 전례 안내

6월 5일(목) : 저녁 7시 30분 미사(성시간)  
6월 7일(토) : 성모성심미사(꾸리아 월레회)

◆ 지속적인 성체조배 안내

6월 6일(금) 저녁 9시 ~ 6월 7일(토) 아침 7시

◆ 2차 헌금 안내

6월 8일 : Catholic Communications/Social Concerns

◆ 야외미사 안내

오늘 교중미사 Joaquin Miller Park  
9:00 ~ 10:30 Walk a thon  
11:00 ~ 12:00 교중미사  
12:00 ~ 1:30 구역별 점심 1:30 ~ 2:30 게임

◆ 예비자 교리 신청

입교식 : 7월 6일 교중미사 중  
예비자 분들이나 예비자를 인도하시는 분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십시오.

◆ 모임

- \* 뜨락회(청년모임) : 매주 교중미사 후 202호실
- \* 기체조 : 매주 교중미사 후 대건회관 1회의실
- \* 사목회의 : 6월 8일 교중미사 후 107호실

| 5월 구역모임 |             | 고린도전서 5-6장          |
|---------|-------------|---------------------|
| 10 구역   | 6월 1일(일)미사후 | Joaquin Miller Park |

| 6월 구역모임 |          | 고린도전서 7-8장 |
|---------|----------|------------|
| 7-2 구역  | 6월14일(토) | 야외         |

◆ 요아킴회/안나회 야유회

일시 : 6월 20일(금) 아침 8시 반 ~ 저녁 6시  
장소 : Angel Island(오클랜드에서 선편으로 왕복)  
집결지 : 아침 8시 20분 Jack London Sq. 유람선 선착장  
회비 : \$10(회원 외 본당 교우 누구나 환영)  
신청 : 6월 17일까지 요아킴회 총무/안나회 회장

◆ 대건산악회 6월 정기 산행 안내

일시 :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 오후 1시  
집합시간/장소 : 오전 9시 반까지 성당 주차장  
직접 오시는 분 : 10시까지 Redwood Regional Park 맨위 주차장  
준비물 : 점심 및 물, 산행 필수품은 각자 지참  
문의 : 510-847-3014

◆ 서중부 남성 영어 꾸르실료 제11차 수강자 모집

기간 : 6월 26일(목) ~ 29일(일)  
장소 : Holy Redeemer Retreat Center  
접수 및 문의 : 이창용 레이몬드

◆ 6월 Hair Cut 봉사는 야외미사 관계로 둘째, 넷째 주일에 합니다.

| 안국학교 등록 안내(2014-2015) |       |
|-----------------------|-------|
| - 6월 말까지 :            | \$285 |
| - 그 이후 :              | \$300 |
| * 개강일 : 9월 6일         |       |